

투데이

한국정치·전국이슈 비평 부쩍 는 박지사

6자회담·총선후보 농민배제 등... 일부선 “대선 포석” 풀이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정책 및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지사는 올들어 농도인 전남과 관련된 FTA문제는 물론 북·미·6자회담 결과 등 국내외 현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삼일절인 지난 1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핵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휴일에 국제이슈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급 논평을

낸 것 자체가 관심을 끌었다.

지난 21일에는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발표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관계자와 농민 대표가 배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2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FTA에 대한 정부의 농업대책이 미흡하다면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지원기준 현실화를 촉구했다.

오는 29일에는 서울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영유아 보육비지원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

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직함으로 참석한다지만 기자간담회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행보다.

박 지사의 이같은 행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선 향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선 광역단체장인 박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애초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대선출마 시나리오는 올해 1월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호남 인물들이 주류에서 밀리면서 호남 대안론으로 힘으로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호남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박 지사만한 흥행카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전남 출마 권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도 “출마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며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DJ사후 적자(鵲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역 정치권의 정서와 비호남권 후보가 돼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이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지사의 대선 출마 현실화 여부는 4·11 총선 결과와 DJ이후 호남 인물론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姜시장, 구청장 공백 동구청 방문

강운태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구청장 공백사태를 받고 있는 동구청을 방문했다. 강 시장은 간부공무원들과 대화를 갖고 구청장의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李明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대구시장 오늘 교차특강...‘달빛동맹’ 강화

〈달구벌·빛고을〉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양 도시의 상생발전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같은 날, 같은 시각 서로의 시청사를 방문, ‘교차특강’을 하기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시장은 27일 오후 2시30분 대구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김 시장은 역시 같은 시간에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각각 1시간에 걸쳐 특강을 한다.

이번 특강은 영·호남 두 도시의 동반 발전과 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추진된 것이다.

김 시장은 ‘광주, 대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김 시장은 ‘대구·광주 상생협력의 새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삼국시대 ‘나해동맹’처럼 ‘달빛동맹’(달구벌과 빛고을의 동맹이란 뜻)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서

화합과 양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의 특강을 할 계획이다.

또, 김 시장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대구·경북의 2015 세계물포럼 상호 지원, 지방분권 공동 대응, 간부 공무원 정기 등반대회, 문화예술 교류공연 등 양 도시 간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교류협력의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박지사, 농업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6일 “한미 FTA 발효로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수혜를 입는 분야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활성화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 정부가 제정한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폐업 농가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피해한 보존하지

말고, 농업과 농촌, 농민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지사는 일정 기간 농사를 지은 65세 이상 농민에게 일정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해주는 ‘재촌(在村) 보조금’을 신설하고,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현행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 지사는 최근 일부 농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도의 비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방식과 관련된 “오는 28일 지역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통해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경영안정대책비는 쌀값 폭락 등의 이유로 전남도가 그동안 직불금 형태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전체 550억원 중 50%만 직불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비 공동육묘장 설치 등에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바꿔 일부 농민이 반발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안함 2주기 추모식 김총리, 희생자 추모

김황식 국무총리는 천안함 폭침 2주기가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 총리는 추모식에 앞서 현충원 내 배훈가족쉼터에서 천안함 46용사, 고(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인들의 회생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천안함 폭침 당시 감사원이었던 김 총리는 “국방부 요청으로 감사한 결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故) 민경기 상사의 모친 윤정자씨가 천안함 사건을 교과서에 실어달라고 부탁하자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추모식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화 후 김 총리는 모비를 어루만지며 전사자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고(故) 한주호 준위의 묘에서는 현화 후 묘비 양 옆에 꽃혀있던 태극기 모양을 바로 잡아 퍼기도 했다. /연합뉴스

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으고 남북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했다.

특히 후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사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양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배려하는 가운데 긴밀한 협의 아래 원만하게 처리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中, 北에 ‘로켓중지·민생발전’ 촉구

한중 정상회담...‘EEZ 경계획정 협상’ 조속 추진

핵테러 방지를 통해 세계 60억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평화서밋(Summit)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중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이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안보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후 주석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모집 공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일류 전시컨벤션센터’를 지향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춘 센터 사장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 3. 26.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모집인원 : 사장 1인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접수기간 : 2012.3.26~2012.4.9, 15일간
- 접수처 :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지원팀 (☎ 062-611-2112)

※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홈페이지(www.kdjcenter.or.kr) 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Kindaechung Convention Center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자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광주지사 영업지원 모집 ☎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지원 모집 ☎61-722-1930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팀장 (문채준) 010-5311-0086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 한도 - 300~7000만원
-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月5만원미만)
-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금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상담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원정보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상담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